

그분을 그리며

—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찾던 선비 정재도

—

이경우

서울신문 어문팀장 · 한국어문기자협회장

지난 5월 22일 오후 정재도 선생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뜻밖이었다. 아흔이 넘으셨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정정해 보이셨다. 우리말을 다듬고 살리는 일이라면 펄펄 날던 분이셨다. 우리말을 버젓이 두고 외국말을 쓰거나 바르지 않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상같았지만, 후배들에게는 다감하고 인정 많은 선배였다. 연구하고 글 쓰는 일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은 학자이기도 했다. 말과 글을 다듬고, 규칙을 정비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사전을 만들었다. 평생에 걸친 이 공로로 지난 한글 날에는 정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선생님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기간 교사 생활을 했다. 바로 언론계로 방향을 바꿔 언론인 생활을 했고,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한때는 세어 보니 40가지가 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설 틈이 없어서 20개 정도로 줄였지만 여전히 바쁘게 지낸다는 말씀이 기억난다. 모두 우리말과 관련한 일들이었다. 그래도 힘들거나 지친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말 다듬기가 내 존재의 이유”

2005년 가을밤이었다. 여든이 넘는 노선배는 밤이 깊어 가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생기가 넘쳐 났다. 40~50대의 후배들은 늦은 밤까지 그 기운에 같이 이끌렸다. 선생님은 언제나 이리셨다. 평생 청년이었고 그 같은 열정을 보였다. 그 바탕에는 우리말이 있다고 해야겠다. 음악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춤꾼처럼 우리말 이야기가 시작되면 춤꾼이 됐다. “날 일(日)의 ‘날’이 해고, ‘바다’가 ‘바랄’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선생님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이랬다. 관심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것이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말 찾기 혹은 다듬기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의 우리말 다듬기는 1945년 창간한 《호남신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생님이 광주사범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일제 강점기였다.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다.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았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헌책방을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다. 거기서 조선 시화집, 조선 역사, 《한글》지를 비롯해 《단종애사》, 《수양대군》, 《마의태자》, 《왕자호동》 따위 소설 등 한글로 된 책을 주로 보게 됐다. 들키면 큰일 나는 일이었지만 선생님은 늘 그랬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결석도 하고, 조퇴도 많이 했지만, 졸업은 무사히 했다. 누구보다 우리말에 대한 지식도 갖출 수 있었다. 이것이 인연이었을까. 당시 《호남신문》 사장이던 노산 이은상 선생이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은 이 시절을 자주 떠올렸다.

“1945년에 창간한 《호남신문》은 1947년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 일간 신문 사상 처음 가로쓰기를 시행했지요. 입사하는 날짜에 가로

쓰기 신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정을 보면서 말 다듬기를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노산이 운영자였기 때문에 우리말 쓰기가 가능했던 거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출’, ‘일몰’을 ‘해돋이’, ‘해넘이’로 바꿔 쓰게 됐습니다. 신문 말 다듬기의 시초일 것입니다. 편집국 전체가 찢찢했습니다. 공무국에서는 원고 고친 것을 일람표로 만들어 벽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노산은 글을 쓰다 맞춤법에 막히면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불러 댔습니다.”(《말과글》 2005년 가을호)

마구 일이 쌓이는데도 신이 나셨던 모양이다. ‘말 다듬기가 내 존재의 이유였다’고 하셨는데, 평생 그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으셨던 것 같다. 선생님이 참여한 단체만 봐도 그렇다. 한국땅이름학회 초대 회장, 사단법인 색동회 부회장,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중앙지명위원, 한말글연구회장, 재단법인 한글재단 감사, 재단법인 외솔회 이사를 지내셨다. 문체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31년을 하셨다. 이렇게 오래 이 일을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맡을 분이 또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찾아 알리기에 힘써

선생님에게 말 다듬기는 우리말 살리기였고, 우리의 정신을 찾는 일이었다. 신문에 게재할 때 이것은 독자에 대한 배려였다.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통합을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얼을 살리고 쉽고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찾아 알리기에 힘썼다.

현직에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었다. 늘 연구하고 알리고 함께하려고 애 쓰셨다.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말을 건져 올릴 줄 아는 재능이 있으셨다. 신문사 교열 부장 출신들이 만드는 우리말 연구지 《한말글 연구》에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한 토막 실려 있다. 책자가 나오면 빠뜨리지 않고 후배들에게 챙겨 주셨다.

2002년 봄 박양자, 신광자, 윤숙림, 이부림 씨 등 여성 문인 네 명이 회갑을 맞아 수필집을 내게 됐다. 제목은 “우리가 회갑이라네”였다. 나 이에 맞게 당당하게 맞서자는 취지였다. 이때 마침 자리를 같이하게 된 선생님께서 ‘회갑’ 대신 ‘꽃갑’이 어떠냐고 하셨다. 중국에서는 화갑을 많이 쓰는데, 화(華) 자를 보면 십(十)이 6개이고, 일(一)이 있어서 61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갑을 화갑(華甲)이나 화갑(花甲)이라고도 했는데, 모두 여성들이어서 ‘꽃갑’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말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수를 보냈고 행복해했다. 책은 “우리가 꽃갑이라네”라는 제목을 달고 출간됐다.

선생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고사성어 다듬기도 시도했다. 그 결과들이 널리 쓰이기는 어려웠지만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을 생각하는 정신은 본받아 마땅해 보였다. 2010년 《한겨레》에 “고사성어 다듬기”라는 이름으로 글을 연재했다. ‘당량지부/당량거철’은 ‘사마귀의 도끼’, ‘도탄지고’는 ‘흙불의 괴로움’, ‘전전반측’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으로 제시했다. 쉬워 보이지만 이리저리 뒤친 끝에 나온 결과들이었다.

‘왜곡’, ‘습니다’ 표기 관철의 주역

선생님은 ‘왜곡(歪曲)’이란 낱말을 지금처럼 통일해 쓰이게 한 주역이었다. ‘왜곡’은 1950년대 말까지 한글학회의 ‘외곡’과 국어국문학회의 ‘의곡’이 맞서 있는 상황이었다. 선생님은 1947년부터 ‘왜곡’을 내세워 1958년에 논문을 발표했다. 지상 논쟁도 벌이고 협박도 받으며 천신만고 끝에 1982년 ‘왜곡’으로 통일되도록 하셨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고 말한다. 북쪽에는 ‘외곡’으로 남아 있다. ‘외곡’과 ‘의곡’을 ‘왜곡’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남아 안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하신 기억이 난다.

1950년대 교과서는 ‘읍니다’만 썼다. 선생님은 이것이 ‘습니다’가 되는 데도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선생님은 현실에서 널리 쓰는 대로 고치는 게 옳다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당시 문교부 편수관들에게 ‘습니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외솔 최현배 선생이 해 놓은 거라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1960년대에 ‘딛다’, ‘굽다’, ‘걷다’ 등 변칙만 ‘습니다’로 하도록 했다. 그러다 1970년대에는 ‘있읍니다’, ‘없읍니다’만 ‘읍니다’로 하고 나머지를 ‘습니다’로 적게 했다고 하셨다. 1970년에 외솔이 돌아가신 뒤 1980년대에 완전히 ‘습니다’로 고치게 했다. ‘습니다’로 고치게 한 배경은 신문이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소년조선일보》에서는 1965년부터 ‘습니다’로 통일해 쓰도록 했다. 교과서와 다르다는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교과서도 곧 바뀔 것이라며 무마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교열이란 두려운 것이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검게 하려고 새치를 날날이 뽑아냈는데, 또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런 두려운 일을 매일같이 하는 어문 기자를

두고는 ‘암전한 선비’라고 표현하셨다. 그러면서 취재·편집의 화려한 기자들에 가려진 채 편집국 한 구석에서 말없이 붉은 펜을 부리는 양들이라고 하셨다. 이 양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 우리말을 다듬는 일꾼이 되라 하셨다. 지금 언론에서 흔하게 쓰는 일본말 ‘쓰나미’를 영 못마땅해 하셨다. 이전에 써 오던 ‘해일’이라 하든지, ‘해일’이 밀물 때 물결이 넘치는 현상이니 ‘밀물결’은 어떨지 제안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언제나 잔소리꾼이 돼야 한다고 이르셨다. 호감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말글 기자’의 숙명이라 하셨다.

교정기자회 창립, 보도 용어 발전 이끌어

선생님은 1947년 《호남신문》 교정부장으로 언론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 뒤 1956년까지 《전남일보》, 《교육신문》에서 교정부장과 편집부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그러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 한글학회의 사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다. 이 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대사전인 《큰사전》이다. 1960년부터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을 거쳐 1980년 말 조선일보사 《소년조선일보》 주간을 끝으로 언론계 생활을 마쳤다. 1981년부터는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하는 데 동참했다. 가장 오래 계셨던 신문사는 《소년조선일보》였다. 《소년조선일보》는 1965년 창간됐는데, 어린이신문이니까 교과서처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다. 창간 때 가서 편집위원으로 5년 있다가 주간이 되셨다. 10년 동안이나 주간을 했는데, 교열 쪽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일했다고 회고하셨다.

선생님은 어문기자협회가 출범하는 데도 기여를 많이 했다. 언론의

언어를 바로잡고 우리말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였다.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언론과 사회,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어문기자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선생님은 교정기자회를 만들어 《기자협회보》에 “바른 용어·틀린 용어”를 1971년까지 56회나 기고하기도 하셨다. 보도 용어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됐다.

어문 규범과 관련해 어문 기자들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은 외래어 표기라 할 수 있다. 교정기자회 첫 연구 모임의 주제도 언론계 ‘외래어 표기법 시안 만들기’였다. 당시는 언론과 교과서의 외래어 표기가 다른 시절이었다. 대표적인 게 교과서에서는 장음 표기를 했고, 언론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가 ‘뉴우요오크’였다면 언론은 ‘뉴욕’이었다. 선생님은 당시 문교부 심의회에 나가 장음 표기 반대 주장을 했고, 지금과 같은 표기 원칙이 정해졌다. 현재 언론의 외래어가 일관성 있게 표기되고 있는 것은 정재도 선생님을 비롯한 이 시절 어문 기자들의 구실이 컸다. 그뿐만 아니라 신문의 언어가 발전하는 데도 큰 받침목이 됐다.

평생의 화두는 ‘우리말’, 지향점은 ‘인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국어사전 바로잡기’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1999년에 이미 《국어사전 바로잡기》라는 책을 낸 터였다.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 두고 있었다. 우리의 국어사전에는 필요 없는 한자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한 게 필요 없는 한자말 줄이기였다. 그다음에는 우리말 찾기였다. 사전에서 한자

를 제시하고 있으나 순우리말인 것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선물’, ‘편지’, ‘남편’이 한자말이 아니라 순우리말이라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중국이나 일본에는 ‘편지’나 ‘남편’이라는 낱말이 없다고 했다. 한자 ‘편(便)’에는 ‘사람’이라는 뜻이 없지만 우리말 ‘편’에는 있다는 것이다. ‘억울(抑鬱)하다’도 ‘어굴하다’여야 하는데,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일본말이 많이 박혀 있다는 것도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틀린 말을 찾아내고 어려운 말을 다듬는 것도 《국어사전 바로잡기》의 내용에 들어 있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학술 용어, 기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건 문제라는 따끔한 충고를 틈날 때마다 했다.

선생님의 그간 연구는 국정감사 자료의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철상 의원이 제기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8년간 500명의 학자가 참여했고 11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국가사업이었다. 당시 윤 의원은 이 사실을 밝히며 《표준국어대사전》이 중국 사전과 일본 사전의 합성품으로 주체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50만 단어 중 우리말은 변용되거나 없어지고 중국 한자어와 일본어 등이 다수 수록됐다고 지적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푸른 하늘’을 뜻하는 한자말이 21개나 수록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푸른 하늘’이란 우리말은 찾아볼 수 없고, 궁창(穹蒼), 벽공(碧空), 벽락(碧落), 벽우(碧宇), 벽천(碧天), 소천(所天), 창공(蒼空), 창천(蒼天), 청명(靑冥), 청천(靑天), 청허(靑虛) 등만 올라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후배들을 만나면 선생님이 늘 하던 말씀이었다. 선생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많이 아쉬워했다. 한자말이 국어사전의 70%를 차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의

69%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한자말의 비중은 한글학회의 《큰사전》이 5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57.3%라고 했다. ‘겉겨’를 ‘왕겨’라고 하는데 왕겨의 ‘왕’도 ‘왕왕거리다’, ‘왕창’의 ‘왕’으로 우리말이라고 했다. 대부분 사전들에서 ‘왕(王)’과 상관없는 것을 ‘왕(王)’으로 내세워 ‘왕가뭉, 왕개미, 왕계, 왕고사리, 왕고집’처럼 ‘왕(王)’을 200개 넘게 쓰는데, 이런 잘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평생의 우리말 연구에서 얻은 보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말에는 다른 나라 말에서 볼 수 없는 보람이 있다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ㄹ’이란다. ‘얼굴’을 보면 ‘얼’과 ‘굴’에 ‘ㄹ’이 겹쳐 있다는 것이다. ‘이맛살’, ‘눈시울’, ‘눈꺼풀’, ‘눈알’, ‘콧방울’, ‘입술’, ‘볼’ 같은 말들에 모두 ‘ㄹ’이 들어 있다 하셨다. 우주와 자연을 가리키는 말에도 ‘ㄹ’이 들어 있으니 신비롭지 않으냐고 물으셨다. ‘하늘’, ‘달’, ‘별’, ‘달(산)’, ‘들’, ‘돌’, ‘길’, ‘개울’……. ‘ㄹ’의 신비를 알리고 우리말의 특수성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연구 끝에 2005년 《우리말의 신비 ㄹ》을 책으로 내셨다. 우리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 노산은 선생님에게 ‘청호(靑湖)’라는 호를 지어 줬다. 우리말로 ‘푸른물’이다. 앞의 책 서문에는 ‘푸른물’이라고 적었다.

선생님은 우리 말글과의 인연에 대해 운명이라고 했다. 평생 일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평생의 화두는 ‘우리말’이었지만, 선생님이 지향하고 있는 곳은 ‘인간’이었다. 따스하셨다. 시간 날 때마다 어문기자협회 사무실에 들러 후배들을 격려했다. 자기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인간이 된다고 했다. 연구하라 하셨다. 농부 중에서도 연구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는 것이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경계가 없으며, 열심히 하고 제자리를 지키면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

라 이르셨다. 평생을 일했지만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부끄럽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라 말씀하셨다. 마음 깊이 새긴다.